산업통상자원부 | 보도참고자료

보도시점 2024. 10. 18.(금) 21:00 배포 2024. 10. 18.(금)

한국, 기후클럽 운영위원으로 선정

-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다자협의체인 기후클럽에 운영위원회 설치
- 총 42개 회원국중 한국, 영국, 호주, EU 등 7개국이 운영위원으로 선정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안덕근)는 한국이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자협의체인 기후클럽(Climate Club)의 운영위원으로 선정되었다고 10월 18일(금)에 발표하였다. 기후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 세계 42개국이 참여한 다자협의체이다. 기후클럽은 출범('23.12월) 당시 회원국이 40개국에 도달하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하였으며, 지난 8월 40개국이 참여함에 따라, 운영위원회 선정 절차를 거쳐 한국 등 7개국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.

* 참여국 : 독, 미, 이탈리아, 일, 캐, 프, 싱, 스위스, 뉴질랜드, 칠레 등 42개국 참여
- 운영위원회 7개국 : 한국, 영국, 호주, 이집트, 튀르키예, 인도네시아, 유럽연합(EU)

기후클럽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30%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, 구체적으로 저탄소 철강의 정의, 배출량 산정의 상호운용성, 저탄소 제품 거래 기준 등 국제 산업 탈탄소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서 규범을 선도하고 있다. 한국은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에 적극 참여중이다.

제1차 운영위원회는 10월 18일에 개최되었으며, 동 회의에서 기후클럽의 향후 운영방안과 탄소 누출(Carbon leakage)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. 산업부는 운영위원회가 기후클럽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참여를 결정하였으며, 기후클럽 출범 초기에 규범을 정립해나가는 초대 운영위원회(임기 2년)에 한국이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우리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신통상전략지원관 기후에너지통상과	책임자	과 장	윤진영 (044-203-4890)
		담당자	사무관	성하진 (044-203-489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